

80年代의 油價展望

金 乾 洽
(油協·弘報室長)

70년대 초 석유전문가들은 배럴당 30달러선의 油價는 90년대에나 이룩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 수준은 80년 초반에 이미 돌파했고, 81년 초반에는 油價 40달러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석유의존도가 높은 石油多消費型 경제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油價 동향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變數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에너지를 대량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의 과제를 남기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석유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油價의 지속적인 상승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80년대의 油價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OPEC 價格支配力の 強化

80년대 原油價格형성의 특색은 우선 첫째로 OPEC의 價格지배력의 강화를 들 수 있겠다. 80년대에는 또한 代替에너지의 대폭적인 供給 확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代替에너지는 80년대말에 自由世界 1 차에너지공급의 2%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80년대에는 石油需給이 屢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中東產油國의 政情不安에 의한 공급불안도 계속될 전망이다. 또 產油國의 資源保護政策이 강화되고, OPEC의 가격형성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80년대에는 국제원유시장에 있어서 價格安定機能이 상당히 저하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메이저가 石油生産 등 상류부문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油價의 안정기능이 보장됐으나 산유국들이 產油部門의 국유화를 단행하면서부터 하류부문의 흐름이 절단되었고 또 메이저에 의

한 價格安定기능은 소멸되었다. 또한 이란革命 이후 原油의 공급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產油國이 소비국에 직접 판매하는 DD(직거래) 原油와 現物市場의 原油의 비중이 높아져 이것이 또한 국제원유시장에서의 가격안정기능을 약화시키는 一因이 되고 있다.

셋째는 產油國의 增産능력의 저하로 가격조정력이 감소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생산능력은 日産 1천50만배럴, 사우디는 현재 日産 9백50만배럴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생산력은 약 1백만배럴에 불과해 사우디의 增産에 의한 油價의 조정력도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產油國에서도 자원보존을 위해 減産政策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產油國중에는 이미 增産한계에 이른 국가도 나오고 있다.

넷째로, 80년대 油價형성에 있어서 價格메커니즘에 의한 原油配分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0년대의 油價는 시장법칙이 보다 크게 작용하는 가격형성의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79년 국제원유시장의 파동이 바로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原油수급이 屢박했던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의 과정에서는 가격메커니즘에 의해 세계적인 原油配分이 이루어졌다.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OPEC가 소비국에 하류부문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DD原油, 스파트原油의 판매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80년대의 原油配分이 가격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現物市場의 原油價格을 중심으로 석유수급여하에 따라 가격변동폭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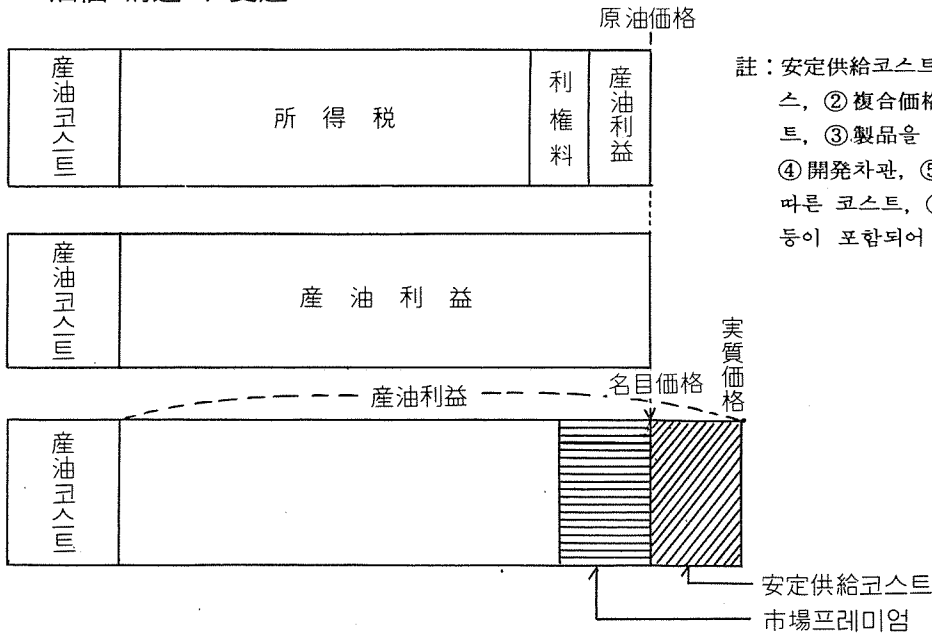
80年代의 原油價格 構造

80년대에는 油價의 구조도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저가 產油部門을 지배했던 시대에는 石油의 利權協定에 따라 유가가 결정되었다. 석유개발에 관한 產油國과의 협정에는 석유생산의 권리를 부여하는 旧式의 이권협정방식, 인도네시아와 같은 生産物分与방식, 그후 中東에서 체결된 請負방식이나 합자사업방식등이 있다. 이와같은 방식아래에서는 油價는 產油코스트,

진을 응용한 가격구조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 萌芽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사인·보너스方式의 원유판매계약이다. 지금까지는 石油利權協定을 체결할때, 고액의 사인·보너스를 지불하는 것이 통상 관례로 되어 있다. 둘째는 複合價格에 의한 原油구입. 과거의 利權協定에서는 석유가 발견된 후에 原油를 複合價格으로 구입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그 예로써 프랑스의 ERAP가 이란, 이라크와 체결한

油價 構造의 變遷



利權料, 所得料 및 産油利益의 4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다. OPEC의 1백% 국유화 이후 일반 유가는 産油코스트에 産油利益을 합친 형태의 구조로 단순화되었다. 例外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石油의 探鉞, 開發, 生産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석유생산량 1백럴당 15센트 내지 22센트 정도의 서비스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협정도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油價構造는 産油코스트에 産油利益을 합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80年代 油價構造는 OPEC의 가격전략으로써, 產油國이 정통한 石油利權協定의 여러가지 조

ERAP協定이 있는데, 그 내용은 原油를 複數價格으로 구입하는 계약이다. 최근에는 원유의 일부를 公示價格으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現物市場이나 일정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복합적인 원유판매계약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셋째로 利權協定중에는 原油 발견후에 현지 精油工場의 건설이나 석유 제품의 거래의무를 규정하는 형태도 있다. 이協定의 경우에는 原油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현지 정유공장의 건설이나 거래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80年代에 있어서 석유의 거래협정에 응용될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開發資金의 貸与方式. 종래의 利權協定에서는 석유가 발견된 후에 産油國측에 개발 자금을 공여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있다. 産油國중에는 外貨不足으로 허덕이는 開途國이 많기 때문에 현재에도 일정액의 차관을 공여하는 代價로 원유를 구입하는 방식의 국가도 있는데 인도네시아, 멕시코, 페루등에서 볼수 있다.

다섯째는 經濟協力の 의무. 종래의 利權協定에는 석유가 발견된 후에 항만개발, 정유공장이나 석유화학공장의 건설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제협력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경제협력의 방법으로 일정량의 보너스原油를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며, 아부다비나 이라크도 工業化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原油를 공급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80年代 油價는 현재의 産油코스트와 産油利益외에 이른바 安定供給보장코스트를 반영하는 형태로 上乘될 것으로 전망된다.

OPEC의 價格戰略

80年代에 있어서 OPEC의 價格戰略은 첫째 實質石油收入의 확대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점에서는 현재의 가격전략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世界的 인플레이나 달러貨의 價值下落에 의한 實質石油收入의 감소를 막기 위해 유가를 실질가격수준으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둘째, OPEC는 原油의 수급핍박을 이용하여 계속 油價의 인상을 추구할 것이다. OPEC의 價格引上戰略으로서의 우선 자원보호정책의 강화, 減産에 의한 수급의 불균형이나 일부 産油國의 정치적 減産을 이용한 가격인상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는 DD原油, 스파트原油의 판매에 의한 유가의 인상. 이란革命이전에는 국제원유시장에서의 現物市場 原油의 비중이 전체거래량의 5%를 밑돌았으나 이란革命後 한때는 세계시장 총거래량의 10%, OPEC 직접판매량의 20%까지 스파트原油의 비중이 증가했다. 이런 점으로 보아 80년대에는 DD原油의 비중이 높아

지고, 수급이 팽박할 경우 現物市場의 原油판매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는 附帶條件에 의한 실질석유가격의 인상. OPEC 油價는 최저가격이 기준이 되고 있어 수급이 팽박할 때에는 OPEC 회원국의 가격 설정에 관한 재량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리비아가 그 一例로 리비아는 수급여하에 따라 가격차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公示價格과 現물시장가격의 혼합에 의한 가격설정방식. 현재의 이란方式이 그 例이며, 장기계약에 사인 보너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서는 이라크方式이 있는데 하루 1만배럴 공급 계약에 3천만달러 정도의 사인 보너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방식에서는 배럴당 8달러 정도의 실질인상이 되는데 앞으로도 수급이 팽박해질 경우, 이런 사인 보너스方式이 채택될 공산이 크다.

技術·經濟協力과 安定供給

최근 産油國들은 기술과 경제협력에 응하는 소비국에 대해 原油의 안정공급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産油國들은 포스트石油에 대비하여 自國의 경제개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石油가 고갈되는 경우에 대비한 장기계획의 基調는 天然가스를 이용한 工業化.

경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이, 石油化学工場을 건설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 보너스原油를 일정방식으로 공급하는 국가도 있으며, 그밖의 産油國들도 工業化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원유의 안정공급을 보장하는 경향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政府間 協定에 의한 原油供給(GG原油)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우디의 GG原油供給대상에는 韓國이나 台灣과 같은 中進國그룹도 포함되어 있다.

80年代의 油價展望

80年代의 油價는 석유사정의 불투명, 세계경제의 인플레이率과 달러貨가치의 동향에 따라 좌우될 것이므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長期原油價格展望

(單位: 달러/배럴)

	1979年末	1980年 1月	1985年	1990年
基準原油價	24	26	40~55	(1) 60~80
上限價格	30	35	45~65	(2) 70~100
代替에너지 供給코스트 (3)	40	40	55	80

註: (1) 代替에너지의 供給增의 케이스, 인플레이率在 낮은 케이스.

(2) 代替에너지의 供給이 적은 케이스, 인플레이率在 높은 케이스.

(3) 石炭液化的 予想코스트 37~44달러의 平均, 年 7% 인플레이率로 實質價格上昇을 假定.

資料: 80年代의 石油(半島俊明 著·日本經濟新聞社 刊)

에너지源別 生産코스트 (1979年)

(單位: 石油환산달러/배럴)

国内炭(美国)	3~5	美国炭으로부터의 SNG	23~35
輸入炭(欧洲北西部)	8~14	石炭液化(美国)	30~37
国内炭(欧洲北西部)	10~15	輸入炭液化(欧洲北西部)	30~44
中東石油	0.25~1.00	오일·샌드	15~25
北海石油	7~12	오일·셸	15~35
原子力 브레이크이븐 코스트	7~11	바이오마스 燃料	30~36
国内炭 低칼로리 가스(美国)	19~25	太陽熱 温水(緯度 35° 現地코스트)	50~130
輸入 LNG	10~23		

註: 税金, 精製, 貯藏, 輸送, 配給코스트 除外.

資料: OPEC統計

OPEC는 장기적으로 油價를 代替에너지의 供給코스트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OPEC 經濟委員會는 代替에너지의 供給코스트를 35달러 내지 55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代替에너지 공급코스트의 理論値는 제일 비싼 석탄 액화의 경우, 보통 37달러 내지 44달러로 알려져 있다. 가령 현재 40달러의 代替에너지가 世界인플레이率에 따라 年평균 7%씩 상승할 경우 90년에는 80달러에 이른다는 계산이 된다. 현실적으로 볼때 80年代에는 油價가 단순한 인플레이率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 숫자가 90년에 원유가격의 기준치가 되리라고 단언할수는 없지만 90년에 가서 代替에너지가 대량으로 供給될 경우 이것이 原油價格의 上限이 되어 原油가격은 80달러 수준에 머물것이나 代替에너지의 供給량이 적을 경우에는 이 수준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해이다.

이와같이 油價의 전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世界經濟의 인플레이率在 年10% 전후일 것으로 가정할 경우, 80년대초의 배럴당 26달러의 기준原油가격은 85년에 40달러에서 55달러, 80년대말에는 그후의 인플레이率在 낮아질 경우 60달러 내지 80달러, 높아질 경우에는 70달러에서 9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 숫자는 현재의 油價가 年평균 10% 내지 15%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할 숫자이다.

그러나 석유는 전략상품이기 때문에 수급과 가격에 있어서 경제외적 요인이 작용하거나 미국 CIA보고대로 소련이 80년대 중반부터 석유 수입국으로 돌 경우 油價 백달러시대는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